

무승 체증 날린 골·골·골... 승격 가는 길 '탄탄대로'

K리그2 27라운드

광주FC, 아산 무궁화에 3-1
하칭요·윌리안·임민혁 릴레이 골
6경기만에 승리 거둬
2위 부산과 승점 6점차 벌려

광주FC가 6경기 만에 승리를 거두며 활짝 웃었다.

광주는 지난 15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9 K리그2 27라운드 경기에서 아산 무궁화를 3-1 제압했다.

경기가 끝난 뒤 주장 완장을 차고 경기장을 누볐던 최준혁은 "형들이 없어서, 리더할 사람이 없어서 주장 완장을 차고 있는데 울 뻔했다"라며 승리의 소감을 밝혔다.

눈물까지 났다는 최준혁의 이야기처럼 광주에는 예타게 그리던 승리였다.

광주는 지난 8월 치른 4경기에서 모두 무승부에 그치면서 애를 태웠다.

그리고 A매치 휴식기에 앞서 열린 지난 1일 안산 원정에서는 엄원상의 프로데뷔골을 지키지 못하고 1-2 역전패를 당했다. 승격을 위해 총공세를 하고 있는 2위 부산 아이파크와의 격차는 4점 차까지 줄어들었다.

실상 가장 팀 상황도 좋지 못했다.

펠리페가 앞선 안산전에서 격한 감정을 노출하면서 퇴장 당했고, 팀을 이끌어줘야 할 배대량 선수들은 부상과 부진 등으로 주춤했다.

결국 최준혁은 이날 경기에서도 주장 완장을 차고 그라운드에 올라야 했고, 박진섭 감독은 펠리페와 이오템의 부재를 메우기 위해 파격적으로 3백을 가동했다.

걱정 많았던 경기에서 광주는 기분 좋은 3-1 승리를 만들었다.

펠리페가 빠졌지만 '브라질 듀오' 하칭요와 윌리안이 나란히 골맛을 봤고, U-22대표팀에 다녀온 임민혁도 시즌 첫 골을 장식했다.

처음 선발 출장한 하칭요는 전반 41분 윌리안의 절묘한 패스를 받아 왼발로 아산의 골망을 흔들었다.

후반 6분에 광주 수비가 집중력을 잃으면서 무방비 상태로 아산 오세훈에게 동점골을 허용했지만, 후반 31분 상대의 핸들링 파울로 얻은 페널티킥 찬스에서 윌리안이 두 번째 골을 만들었다.

그리고 1점의 아쉬운 리드가 이어지던 후반 42분에는 후반 교체 투입된 임민혁이 거침없는 돌파와 슈팅으로 팀의 세 번째 골을 만들었다.

기다렸던 승리를 얻은 최준혁은 "팀을 이끌어



광주 FC 하칭요(왼쪽)가 지난 15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2 27라운드 아산 무궁화와의 경기에서 전반 41분 선제골을 넣은 뒤 도움을 기록한 윌리안과 환호하고 있다. <광주 FC 제공>

된다 마음이 컸다. 주장 완장 차고 처음 이긴 거라서 울컥했다. 내가 골 못 넣었을 때도 울 것 같았다. 이겨서 다행이다"고 웃었다.

광주에는 부산의 무승부도 반가웠다.

지난 14일 광양을 찾은 부산은 전남 드래곤즈와

치열한 힘겨루기 끝에,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김진규의 골로 간신히 3-3 무승부를 거뒀다. 승점 1점은 챙겼지만 광주가 승점 3점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두 팀의 격차는 6점 차로 벌어졌다.

광주에는 부산의 무승부도 반가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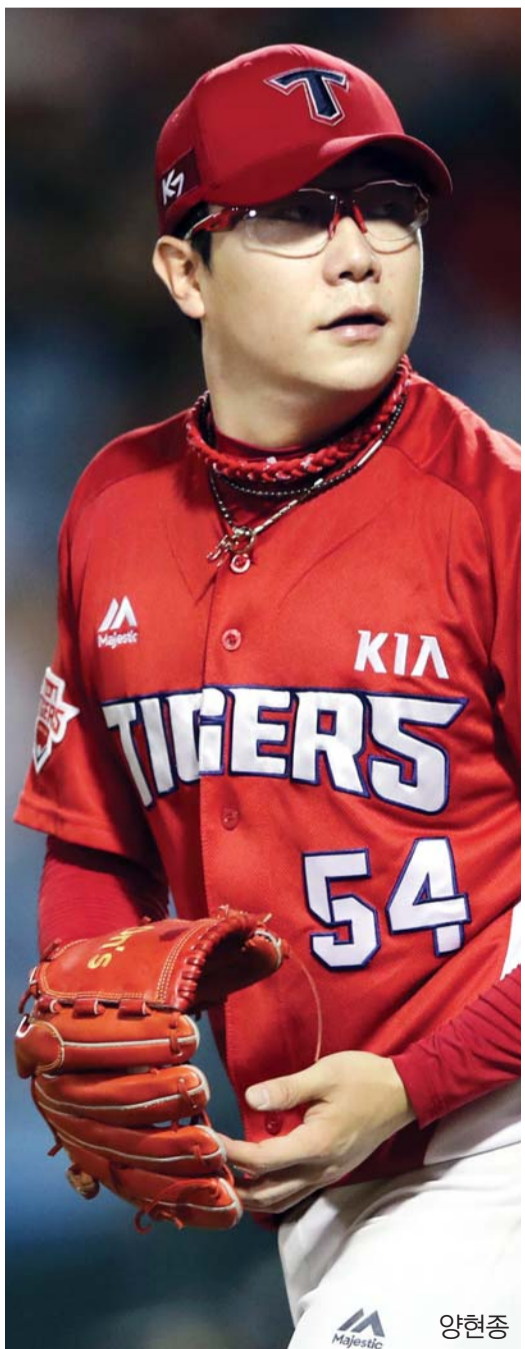
지난 14일 광양을 찾은 부산은 전남 드래곤즈와

4로 승격으로 가는 길에 속도를 내게 됐다.

박진섭 감독은 "분위기가 어려웠는데 이번 승리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것 같다. 선수들이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며 "팀 상황상 스리백 연습을 시켰고, 거기에 공격적인 부분을 더했다. 3골을 넣은 점

은 좋게 생각하지만 선수들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마음이 급했다. 더 좋은 경기를 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마지막까지 한경기 한경기 중요할 것 같다. 마지막까지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발 고춧가루 주의보

T 타이거즈 전망대

NC·롯데·삼성·두산과 잔여경기
NC-KT 5위·두산-키움 2위 싸움
양현종, NC전 선발 등판
막판 순위싸움 향해 관심

KIA 타이거즈가 '고춧가루 부대'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킨다.

KIA는 지난주 원정길에서 1승 4패의 전적을 안고 돌아왔다. 결과도 결과지만 패배로 가는 과정이

좋지 못했다.

선발들은 경기 초반에 힘을 쓰지 못하고, 야수들은 실책 연발로 찬물을 끼얹었다. 목표를 잃고 무기력하게 남은 시즌을 흘러가고 있는 KIA에는 이제 9경기 만이 남아있다.

5강은 물거품이 됐고 효과적인 리빌딩을 하기도 부족한 시간이지만,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경기들은 남아있다.

KIA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은 '고춧가루 부대'다.

KIA는 17-18일 각각 NC, 롯데와 홈경기를 치른다. 그리고 19일 대구로 건너가 삼성과 시즌 최종전을 치른 뒤 20-21일 잠실에서 두산과 마지막 2연전을 치른다.

NC와 두산은 '가을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팀들

이다.

상대전적에서도 NC에 6승 9패로 뒤져있고, 두산과의 결과는 더 좋지 못했다.

앞선 14번의 만남에서 KIA는 3승 11패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남은 경기에서 열세는 뒤집을 수 없지만 두 팀에 치명적인 패배는 안겨줄 수 있다.

마지막 5강 무대는 NC에 많이 기울었지만 아직 6위 KT에게도 기회는 남아있다. NC입장에서는 빨리 5강을 확정하고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준비하는 게 목표다.

두산은 키움과 치열한 2위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다. 매 경기 2위 이름이 달라질 수 있는 박병의 승부가 전개되고 있는 만큼 KIA는 남은 시즌 순위싸움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가을잔치'는 무산됐지만 KIA의 마지막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양현종의 마지막 등판에도 눈길이 쏠린다. 양현종은 지난 11일 사직 원정에서 86구 무사사구 완봉승을 거뒀다. 개인 통산 4번째 이자, 시즌 두 번째 완봉승이었다.

양현종은 8월 4일 NC와의 홈경기에서는 99개의 공으로 완봉승을 기록했었다.

완봉승 기록을 살린 양현종은 17일 NC를 상대로 시즌 마지막 등판에 나설 예정이다.

양현종은 이 등판을 통해서 5년 180이닝 기록을 채우게 된다. 양현종은 올 시즌 28경기에 나와 179.2이닝을 소화하면서 2.25의 평균자책점과 16승 8패를 기록하고 있다.

실책 퍼레이드를 이어가고 있는 야수진이 견고한 수비와 집중력 있는 타격으로 양현종의 승리 도우미가 되고, '고춧가루 부대'로 변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체면 구긴 아스널

EPL 최하위 왓포드에 슈팅개수 31 vs 7 열세 끝 2-2 무승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의 아스널이 리그 최하위 왓포드에게 진땀을 흘렸다.

아스널은 16일 (한국시간) 영국 런던 비커리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2020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원정경기서 20위 왓포드와 2-2 무승부를 거뒀다.

이날 경기에서 왓포드는 아스널을 상대로 무려 31개의 슈팅을 쏟아부었다. 반면 아스널은 7개에

그쳤다. 아스널 입장에서는 무승부로 끝난 것이 다행스럽게 여겨질 정도의 경기력이었다.

왓포드는 지난 8일 성적 부진을 이유로 리그 4라운드 만에 하비 그라시아 감독을 경질했다. 왓포드는 소량수로 지난 2015-2016시즌 팀을 이끌었던 스페인 출신의 키케 플로레스 감독을 선임했다. 키케 감독은 당시 승격팀 왓포드를 FA컵 준결승까지 올려놓으며 용병술을 인정받은 바 있다.

또 키케 감독은 지난해 8월 한국 국가대표 감독이 공식일때 국내 축구 팬들이 가장 원했던 감독중 하나로 김판곤 대한축구협회 위원장이 직접 그의 집을 찾아가 구애를 펼친 정도로 한국 축구와도 인연이 있는 감독이다.

이날 키케 감독 취임 후 첫 경기에서 왓포드는 확실한 경기력을 선보였다. 강호 아스널을 상대로 초반부터 강한 압박을 펼쳤다.

전반 초반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인 데올로페우가 드리블로 아스널의 수비를 괴롭히며 왓포드의 공격을 주도했다.

하지만 아스널에는 주포 피에르 오바메양이 있었다.

오바메양은 전반 21분 역습을 통해 선제골을 넣

었다. 10분 뒤에는 팀 동료 매이틀랜드-나일스 팜블 패스를 받아 멀티골을 작성했다. 나일스의 패스는 누구나 발만 대면 골을 기록 할수 있는 완벽한 패스였다.

전반을 2-0으로 마친 아스널은 후반들어 왓포드에 연이어 슈팅을 허용하며 스스로 무너졌다.

후반 8분 아스널의 중앙 수비수 소크라티스가 페널티 라인 안에서 상대편 선수인 톰 클레벨리에게 패스를 했고 클레벨리가 이를 놓치지 않았다. 이어 후반 35분 아스널의 다비드 루이스가 위협지역 안에서 불필요한 태클로 반칙을 범하며 페널티킥을 허용했고, 왓포드가 이를 성공시켜 경기는 2-2 무승부로 끝났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